

2023년

# 현충시설 실무자 역량강화 세미나

현충시설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상생

2023. 10. 12.(목) ~ 10.13.(금)

# 세부일정

## 1일차

날짜	시간	내용	장소
10.12. (목)	10:00 ~ 10:30	입장 및 개회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강당
	10:30 ~ 10:35	개회사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10:35 ~ 11:05	<b>[기조강연 1]</b> 2023 현충시설의 정체성 (박경목 충남대학교 교수)	
	11:05 ~ 11:40	<b>[기조강연 2]</b> 지역 문화 속의 현충시설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	
	11:40 ~ 14:00	점심식사 및 전시관 관람	
	14:10 ~ 14:35	<b>[사례발표 1]</b> 전쟁기념관 전시 사례발표 실감영상 <OCEAN> d'strict x WMok (김보영 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14:35 ~ 15:00	독립기념관 소장자료의 보존환경 관리 (최유리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15:10 ~ 15:35	<b>[사례발표 2]</b> 지역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한 현충시설 활성화 (배원경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학예연구사)	
	15:35 ~ 16:00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app의 활용 (김아람 독립기념관 고객센터부)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일차

날짜	시간	내용	장소
10.13. (금)	10:00 ~ 10:30	<b>[사례발표 3]</b> 프랑스 에코뮤지엄 운영 사례를 통해 본 현충시설 협력망 사업의 방향성 (배은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에코뮤지엄연구소 소장)	천안 오엔시티 호텔
	10:30 ~ 11:30	<b>[분담 토의]</b> 현충시설 협력망 방향에 대한 토의	
	11:30 ~ 12:00	폐회	

# 목 차

## 기조강연 1

2023 현충시설의 정체성 ..... 1

박경목 | 충남대학교

## 기조강연 2

지역 문화 속의 현충시설 ..... 15

류호철 | 안양대학교

## 사례발표 1

전쟁기념관 전시 사례발표 -실감영상 〈OCEAN〉 d'strict x WMok ..... 35

김보영 |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소장자료의 보존환경 관리 ..... 45

최유리 | 독립기념관

## 사례발표 2

지역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한 현충시설 활성화 ..... 63

배원경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app의 활용 ..... 73

김아람 | 독립기념관

## 사례발표 3

프랑스 에코뮤지엄 운영 사례를 통해 본 현충시설 협력망 사업의 방향성 ..... 83

배은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에코뮤지엄연구소

■ 기초강연 1

---

## 2023 현충시설의 정체성

---

박경목(충남대학교 교수)

# 2023 현충시설의 정체성

박경목(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목차

1. 현충시설은
2. 현충시설의 유래와 범위
3. 미완의 현충시설
4. 기억과 기념의 책무
5. 역사문화콘텐츠로서의 현충시설

## 1. 현충시설은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일신의 안위와 가족과 가정을 버리고 항일 독립운동이나 전쟁에 자신을 희생했던 그들을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우리 모습은 그들의 투쟁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유와 평화의 피의 대가를 그들이 치렀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념비(탑, 비석), 기념동상, 기념조형물, 기념공원, 사당 및 생가, 기념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체의 시설이 이른바 현충시설로 통칭되고 있다.

현충시설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상은 특정한 역사의 산물이다. 따라서 현충시설은 설립 목표가 매우 뚜렷하며, 특별히 선별된 형태의 기억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당 시대의 의지가 반영된다. 1980년대 일본의 국정교과서 왜곡에 대응하면서 민족적, 정치적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념관(1987)이나 정치적, 도덕적, 애국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프랑스의 칸 기념관(1988), 나치 하 독

일의 유대인 학살 반성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설립된 베를린 국립 홀로코스트 기념관(2005)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설립 시기의 정치적 의도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념물(시설)이 만들어진다.

## 2. 현충시설의 유래와 범위

‘현충시설’이라는 용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85. 1. 1, 이하 「국가유공자법」)에 2002년 1월 26일 신설된 제8장의 2 제74조의 2(현충시설의 지정), 제74조의 3(현충시설의 관리), 제74조의 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조항에 명시되었다. 제74조의 2, 제1항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훈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다. 현충시설의 개념을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설이나 일정 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지정의 주체를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의 현충시설정보화 서비스 포털에서는 ‘현충시설이란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 등으로서 독립운동시설과 국가수호시설로 구분됩니다.’라고 명시하였다. 희생과 공헌, 정신의 선양이 현충시설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다.

조국의 독립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기리려는 인식과 그 기념물은 위 법에서 ‘현충시설’로 규정하기 이전부터 있어 왔다. 해방 후 1950년 6월 3.1운동기념비추진위원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관련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으나 한국전쟁과 군사쿠데타 등을 겪으며 추진되지 못하다가 1963년 8월 15일 탑골공원에 ‘3.1독립선언기념탑’이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해방 후, 한국전쟁 후 전국 각지에 기념시설들이 설립되었다. 주로 민간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시작된 계기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해서이다. 각종 단체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에 대한 기념물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이들의 요구에 국가보훈처에서 공적비 등을 설치하면서 현충시설에 관한 개념이 인식되었고 관련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1년부터 참전시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져 독립운동에서 6.25한국전쟁 관련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념행위의 결과물들을 총합하

고 이를 관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위 법률 제74조의 2 ~ 4의 조문이 후속 조치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민간에서의 자발적 기념행위를 관에서 지원하면서 하나의 행정용어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기념물 등 설치 사례를 총합하여 가장 적절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顯忠 : 충렬을 드러내는 + 시설’이라는 의미만으로는 다양한 기념물과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공간 또는 장소를 포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불충분한 현충시설의 개념을 보완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 2, 제2항과 동법 하위 법령인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566호, 2002. 3. 30) 제3조(현충시설의 범위)이다. 전자에서는 현충시설을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 두 가지로 분류하고, 후자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제3조 제1항에서 독립운동 관련 시설에 대한 범위를, 제2항에서 국가수호 관련 시설에 대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현충시설의 범위

독립운동 관련 시설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가.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 또는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추모비·어록비(語錄碑)와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상징물 다.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한 조형물·상징물 라. 독립운동을 한 장소 마.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바. 독립유공자의 사당(祠堂)·생가(生家) 및 부속건물 사.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독립운동 관련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가.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참전(參戰)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념비·전공비·추모비·현충탑·위령탑과 그 밖의 비석 및 탑 나.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조형물·상징물 다. 국가수호활동에 관한 조형물·상징물 라. 국가수호활동을 한 장소 마. 국가수호활동과 직접 관련된 기념관·전시관 바.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護國精神)을 계승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위 조항에 따르면 현충시설은 첫째, 기념비, 추모비, 어록비, 전공비, 현충탑, 위령탑 등 탑·비 형태의 시설. 둘째, 조형물·상징물 등 동상 형태의 시설. 셋째 역



사 현장이었던 장소. 넷째, 기념관·전시관 형태의 시설, 다섯째 사당·생가 및 부속 건물 등 건물 형태의 시설. 여섯째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총 여섯 가지의 형태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충시설은 문화재청에서 고시·지정하는 국가문화재, 등록문화재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안동 임청각의 경우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고, 2009년 5월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서대문형무소 역시 1988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12월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중복 사례는 생가나 사당, 현장 공간인 경우 다수 발생한다.

문화재와 현충시설의 중복 지정은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와 현충시설로서의 위상을 갖춘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충돌 현상이다. 광복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 지원한 독립운동가 최준(崔浚)은 이른바 경주 최부자 가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생가인 '경주 최부자택'은 1971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현충시설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위원으로 활동한 조성환(曹成煥)의 생가인 '여주 보통리 고택' 역시 1981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현충시설은 지정되지 않았다. 문화재로 지정된 후 현충시설로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이다. 현충시설이 갖는 개념과 범주의 한계라 할 수 있다.

### 3. 미완의 현충시설

현충시설은 현행 법률에서 규정한 개념만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유공자법」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에 대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시설물도 포함하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는 유사한 법률 사이에서 현충시설을 다른 용어 명시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2005년 제정된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1항 2호에 다음과 같은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 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이 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훈선양 사업을 의무화하면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그 시설을 “공훈선양시설”이라고 명명하였다. 동법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1항에서는 공훈선양시설의 범주를 명시하고 있다. 이미 「국가유공자법」에서 명시한 현충시설의 개념을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다른 용어로 다시 정의 내리고 있다. 두 법률의 현충시설과 공훈선양시설에 관한 조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현충시설과 공훈선양시설 조문 비교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lt;관련 조항 2002. 1. 26.신설&gt;</p>	<p>「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 &lt;2005. 5. 31.제정&gt;</p>
<p>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u>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u>’</p>	<p>①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u></p>

두 조문에 의하면 공훈선양시설은 현충시설에서 규정한 건축 형태, 조형 형태, 일정한 구역, 기념관, 전시관 등 개념과 범위가 거의 일치한다. 현충시설과의 차이점은 지정 행위의 주체이다. 현충시설은 국가보훈장관이, 공훈선양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이다. 「국가유공자법」과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하면 한 기념물에 국가보훈부장관의 현충시설 지정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훈선양시설 지정, 두 가지 지정이 가능하다. 문화재 지정과는 다르게 두 지정 행위의 사유나 목적이 다르지 않은데 왜 두 가지 용어가 만들어졌을까? 현충시설에 대한 개념과 범주의 불충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넓은 범주의 희생·공헌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공훈선양 시설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전국 각 광역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규정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각 지역에 따라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쓰인다. 같은 대상물을 두고 ‘현충시설’, ‘공훈선양시설’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당 용어가 쓰이는 비율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현충시설, 공훈선양시설 사용 용례

명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소계 (비율)
현충시설	경산 경주 고양 고창 공주 괴산 구례 구리 구미 군산 금산 김제 김천 나주 남양주 남원 논산 당진 동두천 동해 무주 보령 봉화 부안 삼척 상주 서울강서 서천 순창 아산 안동 양산 양주 여수 영천 예산 완주 울릉 울진 원주 음성 의령 의성 이천 익산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제천 진천 증평 창녕 창원 천안 청송 청양 청주 충주 칠곡(60) 경북 세종 전북 충남 충북 제주(6)	66개소 (30.27%)
공훈선양시설	가평 강진 고령 고흥 곡성 과천 광주북구 광주서구 김포 대구달성 밀양 보성 서울광진 순천 시흥 신안 영광 영암 영주 오산 옥천 완도 인제 인천동구 인천미추홀 인천부평 인천연수 장흥 진도 청도(30) 전남(1)	31개소 (14.22%)

기타	보훈관련 시설	군포, 안산, 안양, 연천(4)	24개소 (11.01%)
	보훈시설물	부천(1)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	부산강서 부산금정 부산기장 부산남구 부산동구 부산동래 부산부산진 부산북구 부산사상 부산사하 부산서구 부산수영 부산연제 부산영도 부산중구 부산해운대 울산 울주(18)	
	국가유공자의 공훈 선양을 위한 시설	태백(1)	
미기재	강릉 강화 거제 계룡 고성 광명 광양 광주광산 광주남구 광주동구 광주(경기) 김해 인천남동 남해 단양 담양 대구군위 대구남구 대구달서 대구동구 대구북구 대구서구 대구수성 대구중구 대전대덕 대전동구 대전서구 대전유성 대전중구 목포 무안 보은 부여 사천 산청 서산 서울강남 서울강동 서울강북 서울관악 서울구로 서울금천 서울노원 서울도봉 서울동대문 서울동작 서울마포 서울서대문 서울서초 서울성동 서울성북 서울송파 서울양천 서울영등포 서울용산 서울은평 서울종로 서울중구 서울중랑 성주 속초 수원 안성 양양 양평 여주 영덕 영동 영양 영월 예천 용진 용인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중구 의왕 의정부 인천계양 인척서구 인천중구 장성 정선 진안 진주 철원 춘천 태안(88)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울산 인천(9)		97개소 (44.50%)
합 계			218개소 (100%)

\*전국 광역자치단체 : 17개소, 기초자치단체 226개소, 합 243개소

전국 243개소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위 조례를 채택한 곳은 218개소이다. 그 가운데 현충시설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66개소로 30.27%, 공훈선양시설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31개소로 14.22%의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혼용 현상을 피하려는 의도인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훈관련 시설’, ‘보훈시설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을 위한 시설’ 등으로 명시하였다. 그러한 곳이 24개소, 11.01%이다. 두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예 용어를 풀어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현충시설 또는 공훈선양시설을 지원하는 조항이

없는 곳이 97개소, 44.5%이다.

용어의 혼용으로 관련 기념물을 건립 또는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할 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위치 하느냐에 따라 사업 명칭을 현충시설로 할지, 공훈선양시설로 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충시설로 지정받고 예산 지원은 공훈선양시설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시민들에게 해당 기념시설을 알릴 때에도 정체성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현충시설과 공훈선양시설의 혼용 문제는 개념의 명확성, 포괄성 그리고 실제 활용 사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한가지 용어로 다시 명명하거나 통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기억과 기념의 시설을 일단 현충시설이라고 통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용어의 테두리에 갇혀 정형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4. 기억과 기념의 책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상은 특정 지역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이다. 현충시설은 이것을 대중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개인-일부-의 기억에서 대중-전체-의 기억으로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사람들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기억’을 상징화하고 그것을 ‘기념’함으로써 일정한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이어 나가게끔 한다.

이때 현충시설은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기초하는 ‘기억’을 담아내고 있는 시공간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지역의 역사를 공유하고 지역민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각성시킴으로써 정서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역 통합과 지역 정책 사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현충시설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의 우리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그 기억을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역사를 재생산하고, 그 역사를 기념해야 하는 책무이다.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현충시설은 시민과 역사를 마주하며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를 위한 기념유산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때 현충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에 문화적·교육적 책임을 가지며, 기억과 기념의 책무를 수행하는 공공재로서 역할 해야 한다.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위해 현충시설이 상징하고자 하는

‘기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시,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통합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곧 지역의 정체성과도 연계된다. 이를 위해 ‘상징’과 관련하여 지역에 산재한 기억의 공간과 장소,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하나의 ‘정서’로 연결하는 구심점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문화적·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 책임을 다할 때 현충시설의 의의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5. 역사문화콘텐츠로서의 현충시설

현충시설이 대중에게 역사적 해석과 경험, 일상화된 기억과 기념으로 다가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역사문화콘텐츠로의 전환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방적 전달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흥미로운 전달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한 탑, 비, 조형물, 건축의 형태만으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 정보매체 외에도 모바일 플랫폼, 앱(App) 기반 소통형 프로그램, 게임 등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오프라인을 통한 교양강좌, 전문강좌, 탐방 및 답사, 체험형 연극 등의 경로로 대중과의 접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모티브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문화콘텐츠로 확대 재생산, 소비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방법론 중 하나로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하나(One)의 원천(Source)을 다중(Multi)으로 활용(Use)하는 전략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를 ‘하나의 원작이 다양한 분야나 장르에서 활용되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비즈니스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본 소스(source)를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개발하고, 이후 다양한 매체와 비즈니스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콘텐츠는 첫째, 콘텐츠 규모가 다양하다. 하나의 원작 콘텐츠로 여러 가지 유형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전시·공연·축제와 같은 대규모 오프라인 콘텐츠부터 방송·음악·영화·게임·앱(App)·캐릭터와 같은 중급 규모의 미디어 및 모바일 콘텐츠, 교육·체험·출판·굿즈(goods) 등과 같은 소규모 콘텐츠까지 망라하고 있다. 둘째, 콘텐츠가 파생되고 재생산된다. 콘텐츠 유형에 따라 각가지 콘텐츠들이 파생, 재생산되면서 대중들의 선택과 참여 경로를 다양하게 확보한다. 셋째, 민간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원작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

간의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영화, 음악, 게임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 민간의 자발적 시도로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

위와 같은 다양성과 활용성은 현충시설의 역사문화콘텐츠화를 위해 지향해야 할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역사를 기반으로 한 서사적 구조의 완성. 둘째,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흥미와 동질감 부여. 셋째 대중들의 기대와 이상을 충족시키는 카타르시스 창출. 넷째 다양한 콘텐츠로 파생시킬 수 있는 OSMU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나아가 현장의 단순함을 보완하는 ‘증강현실(AR)’이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메타버스’도 현충시설에 있어 필요한 역사문화콘텐츠화 방법론 중 하나이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는 현충시설이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와 유물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시민들과 마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가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현충시설이 상징하는 기억과 기념의 확장·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두 방법론은 향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 4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26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현충시설정보서비스(<http://mfis.mpva.go.kr>)

이상민·손은신·송윤정,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정책 연구보고서 2022-1), 건축공간연구원, 2022.

류현숙·조희정·이현아, 「현충시설 명칭과 범위를 둘러싼 쟁점 및 입법 개선방안 연구」,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독립 및 국가수호 기념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국가보훈처, 2011.



■ 기초강연 2

---

지역 문화 속의 현충시설

---

류호철(안양대학교 교수)

## 지역 문화 속의 현충시설

류호철

안양대 교수, 문화재 보전·활용 및 교육 전공

## 류호철

안양대학교 교수

문화재 보전·활용 정책, 문화유산 교육, 문화관광 전공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광주·경북 위원, 충북·세종 전문위원  
안양시·화성시·과천시·아산시 향토문화재 위원 등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전문가 평가위원, 컨설팅 위원  
전국학예연구회·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 자문위원 등

### 1. 현충시설(顯忠施設)의 정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①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 ②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

### 1. 현충시설(顯忠施設)의 정의

2) 국가보훈부 '현충시설 정보서비스'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기리기 위한 시설

## 2. 현충시설 분류와 지정 현황

1) 독립운동 관련 시설 - 985건

2) 국가수호 관련 시설 - 1,310건

합계 2,295건

## 3. 현충시설의 의미와 가치

1) 애국심 고취 소재

2) 역사적 의미

해당 사건이나 인물, 인물의 행적 등에 관한 인식 증진

### 3. 현충시설의 의미와 가치

#### 3) 문화적 의미

남겨진 유산이나 시설로서의 건축적·예술적·장소적 가치 등

#### 4) 자원으로로서 가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산이나 시설로서 활용 가치

### 4. 문화재 보존·관리

#### 1) 문화재의 개념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 4. 문화재 보존·관리

#### 2) 문화재 유형 분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 4. 문화재 보존·관리

지정·등록	문화재 유형					
	국가지정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지정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	국가등록문화재		*	국가등록문화재	*	
시·도등록	시·도등록문화재		*	시·도등록문화재	*	

#### 4. 문화재 보존·관리

##### 3) 문화재 보존·관리

- ① 원칙적으로 소유자 관리
- ② 필요한 경우 관리자(소유자 대리) 선임
- ③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
- ④ 국가에 의한 특별 관리

#### 4. 문화재 보존·관리

##### 4) 현장 문화재 관리 주체와 실태

문화재지킴이와 문화재지킴이 단체 등 민간 역할

문화재지킴이 위촉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지원

## 5. 문화재 활용

### 1) 기본적인 문화재 활용

문화재 공개와 관람 지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 5. 문화재 활용

### 2) 적극적 문화재 활용 시도

- ① 덕수궁 대한문, 경복궁 광화문 등 ‘수문장 교대 의식’
- ② 문화유산해설사 →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 5. 문화재 활용

### 3) 문화재 활용 본격화

#### ①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생생(生生) 문화재’, 2008년 시작  
“문턱은 낮게, 품격은 높게”

## 5. 문화재 활용

#### ②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확대와 분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문화재 야행(夜行)  
고택·종가집 문화재 활용 사업  
생생(生生) 문화재

## 6. 지역 문화로서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활용

### 1) 지역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지킴이 활동

전국 각 지역 약 150개 문화재지킴이 단체





## 6. 지역 문화로서 문화재와 문화재 보존·활용

### 2) 지역 문화유산 활용

민간·공공 지역 단체의 문화유산 활용

지역 사회, 지역 단체 참여와 협력

지역 주민들부터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 인식





## 7. 현충시설의 특성과 보전·활용

### 1) 현충시설의 특성

#### ① 지정 대상

탑, 비석, 동상, 기념관, 조형물, 공원, 장소 등

#### ② 그 자체로 보존 대상이 되는 문화재(문화유산)

## 7. 현충시설의 특성과 보전·활용

### 2) 현충시설의 개념과 대상

의미와 가치 인식

## 7. 현충시설의 특성과 보전·활용

### 3) 현충시설 분류체계

① 성격(내용)에 따른 분류

② 관리·활용 특성 등 실질적 기준에 따른 분류

## 8. 지역 문화 관점에서 현충시설 보존·활용

### 1) 현충시설 보존·관리

- ① 문화재지킴이 단체 등과 협력  
전국대회 지원, 문화재지킴이단체 또는 연합회 지원
- ② 문화재지킴이 등 관리 주체 교육  
인식 확장

## 8. 지역 문화 관점에서 현충시설 보존·활용

### 2) 현충시설 활용과 인식 증진

- ①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과 연계  
문화유산과 연계·융복합
- ② 지역 주민 대상 현충시설과 관련 역사·문화 교육





## 8. 지역 문화 관점에서 현충시설 보존·활용

③ 지역 문화유산 활용 주체 교육 지원과 협력관계 구축

④ 현충시설과 관련 역사·문화에 관한 인식 확산  
보존·관리와 활용 필요성





■ 사례발표 1

---

실감영상 <OCEAN> d'strict x WMok

---

김보영(전쟁기념관 학예연구사)

| 2023 현충사실 실무자 역량강화 세미나 |

# 실감영상<OCEAN> d'strict x WMoK

2023. 10. 12.  
전쟁기념관 전시유물부  
김보영

WMoK

## 목 차

1. 전시 개요
2. 전시 전략
3. 전시 홍보물
4. 전시 성과



1. 전시 개요

1) 전시 명: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  
Part1. 메인전시  
Part2. 실감영상

2) 전시기간: 2022. 10. 26 - 2023. 1. 29.

3) 전시목적  
"임진왜란의 비극을 직시함으로써,  
전쟁의 실상을 마주하다."

WMoK

## 2. 전시 전략

### 1) Part1. 메인전시와 Part2. 실감영상

- (1) 임진왜란 430주년 기획전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
- (2) 거북선출 콘텐츠 개발

### 2) 사업제안서

- (1) d'strict x 전쟁기념관
- (2) 전시 제안 및 기대효과

### 3) 집단지성의 힘

- (1) 디스트릭트코리아 사업부, 제작본부, 홍보팀
- (2) 전쟁기념관 전략기획부, 교육문화부, 관리운영부

d'strict x WMoK 전쟁기념관

## 2) 사업제안서

### 01. 기본방향

임진년 4월에 시작된 전쟁,  
그 후 7년 동안 조선의 바다에서는 파도가 쉬일 날이 없었다.  
적선과 함께 뒤흔치는 격랑,  
그 앞에 선 이순신

콘텐츠	공간	연출
"바다에서 벌어진 7년간의 전쟁"	"거북선 출"	"멈추지 않는 파도"

거북선 출에 외로이 떠있는 거북선과 함께  
430년 전 조선의 맞닥뜨린 격랑의 파도가 실감나게 연출될 때,  
그 비극을 온전히 감내하고 버텨낸 조선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선두에 선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고뇌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

## 02. 전시/연출 메시지

430년 전 전쟁의 비극이 틀어박힌 조선의 바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절망의 파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파도에 잠기지 않고 기어코 그 파도를 가르며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d'strict의 <WAVE>가 저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430년 전의 바다	멈추지 않는 파도	부서지는 포말 속에서	잔잔한 물결
평온하던 조선의 바다에 갑자기 들어 닥친 수 많은 적선물	장장 7년 동안이나 직선으로 뒤흔어졌던 바다	격랑의 바다를 거슬러 전쟁 밑에 발을 디딘 이순신. 그리고 거북선	잠겨버릴 것만 같던 모든 비극은 찾아들고 다시 평온함을 찾은 바다

### ■ CONTEXT

#### #1 병사 세남의 파도 "파도가 부수는 것"

"전쟁의 해 순간은 두려움과 그리움의 연속이다. 오늘날엔 함께 싸웠던 동료들을 무력하게 떠나 50년이 하는 날에는 두려움은 배가 되고, 차라리 적군의 화살이 들고 들어온 것이 내 몸이길. 그저 이 시간이 빨리 끝나 버리길 바라기도 했다."

파도 한 겹이 붉게 물들었던 옷가를 치워준다. 파도가 부수어 내는 것은 확실히 관복상의 잔해 라던지, 몇 영의 이름 없이 가라앉은 병사들이 아니다. 파도가 부수는 것은 거리로 내뿜기는 역성물이며, 그런 역성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용이며, 그럼에도 지켜내고 싶었던 조선이란 국가다.

#### #2 백성의 파도 "물결치는 마음"

배에 오르기 전에 아들 영의 전시 소식이 전해져 왔다.

"나침이 물레 말 휘날리며 온갖날이라서 가지 않으면 언덕고 온서도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배를 빌려 타고 오늘은 잠시 고향을 건너야 한다."

배는 흔들리고 정신은 신란했다. 피란 중이라 한 그래도 익숙하게 치뤄질 흔했다. 이대로 물결을 따라 간다면 곧 목처에 도달할 것인데, 어쩔 수 없는 비움을 어떻게 해야 할단 일인가.

#### #3 이순신의 파도 "결의로 감춰내는 그림자"

잠자간 목숨이 크게 달았다. 배를 안정시킬 수 없었다. 끝이 이상하다. 입천장에 대접 할 때와 거의 같다. 무슨 창조인지를 알 수가 없다.

"파도가 붉게 물드는 꿈이었다.  
발동 알을 띄고 흐르는 이 때가 내 어깨에 묻힌 화살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내 병사들의 삶에서 채어 나왔는지 구분할 수 없이 뒤섞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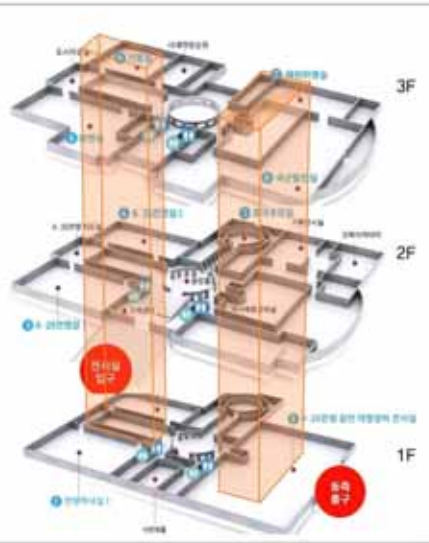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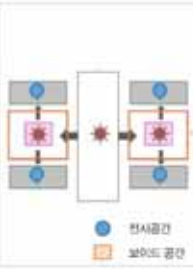
국가를 알았으나, 가족은 알았다. 장수로서 성으나, 개인으로서는 무너졌다. 목숨 값에 무엇을 이리 매길 수 있겠나 만든 하늘과 땅 사이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또 있겠는가 통탄할 뿐이다.

### 03. 공간구성계획

#### ■ 전쟁기념관 공간구성

##### [구조적 특징]

- 영화의 광장(외부)-중심홀-전시실에 이르는 시퀀스(연속성)구조
- 보이드(VOID)공간  
: 1~3층의 오픈된 공간으로 다양한 시각적/ 예술적 접근이 우수



#### ■ Alt. 01



##### [전시연출 및 구조적 특징]

- 기존 벽면을 이용
- 3면의 영상을 통해 1~3층의 전시실 및 회랑, 노출계단과의 연결성 및 시퀀스 구조(연속성) 구현
- 3면의 'WAVE'를 통하여 430년 전 명운한 조선의 바다와 곧 다가올 격랑의 바다를 경험 해 볼 수 있다.

##### [연출 연적]

- 긴 벽: 30m x 5m
- 짧은 벽: 14m x 5m



■ Alt. 02



[전시연출 및 구조적 특징]

- 스탠딩 구조물로 벽면화
- 2층 높이의 영상으로 'WAVE' 영상 연출의 극대화
- ZONE1을 지나 기록선 출로 접근했을 때, 거대한 파도를 통해 몰입형 미디어 아트 경험을 제공한다.
- 'WAVE'를 통해 멈추지 않는 파도와 함께 거장의 바다를 기술의 전영의 발을 디딘 이순신을 떠올리고 그 앞에 기록선을 온전히 감상 할 수 있다.

[연출 면적]

- 18m x 10m

■ Alt. 03



[전시연출 및 구조적 특징]

- 3면 벽면화
- 메인입구에서 기록선 출 이동 시 관람객에게 몰입도 극대화
- 외로이 떠있는 기록선 뒤로 'WAVE'가 연출될 때 비극이 몰아닥친 조선의 바다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다.

[연출 면적]

- 16m x 10m

WMoK

### 3) 집단지성의 힘

## ART SERVICE

MEDIA ART CONTENT LICENSE & EXHIBITION

WMoK

### 3. 전시 홍보물

전시 1차 전시회 1차 전시회 - WMoK Artwork Exhibition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10th Year  
 파도는 멈춘 적이 없었다 - Current Unsettled  
 2022. 10. 26. - 2023. 1. 29. (매주 월요일 휴무) -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포스터>

<도록>

13

WMoK

## 4. 전시 성과

#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3관왕]

 <b>iF Design award (독일)</b>  본상(WINNER) 2023년 4월	 <b>IDEA (미국)</b>  은상(SILVER, 2위) 2023년 8월	 <b>reddot winner 2023</b> <b>REDDOT (독일)</b>  본상(WINNER) 2023년 11월(예정)
--	---	---

19

WMoK

# 질의/응답

20

---

## 독립기념관 소장자료의 보존환경 관리

---

최유리(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 독립기념관 소장자료의 보존환경 관리

독립기념관 자료부  
최유리

## 보존환경

자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환경



온습도



빛



해충균



공기질



그외  
관리상 문제, 수해, 화재, 도난 등



##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보존환경 관리

2020년 수장고의 유해생물종합관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 보존환경 관리 프로세스

<b>01</b> >	<b>02</b> >	<b>03</b> >	<b>04</b> >	<b>05</b>
<b>환경 탐색</b>	<b>데이터 수집</b>	<b>의미 발견</b>	<b>문제 해결</b>	<b>환류 및 확장</b>
특성에 따른 환경요인을 파악	보존 환경을 수치화하여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책 마련 및 시행	지속적 관리와 적용 범위의 확대

# 01 환경 탐색

## 01 환경 탐색

### 수장고 위치·건축적 특성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 면적 : 약 635평
- 구성 : 6개 실
- 건축년도 : 1987년(36년 경과)

구분	상호	면적(평)	관리용적(m <sup>3</sup> )
1	제1수장고(1개실)	163.6	541.2
2	제2수장고(3개실)	293.6	972
3	제3수장고(2개실)	107.3	351.6
4	간실	70.7	232.9
계		635.2	2,0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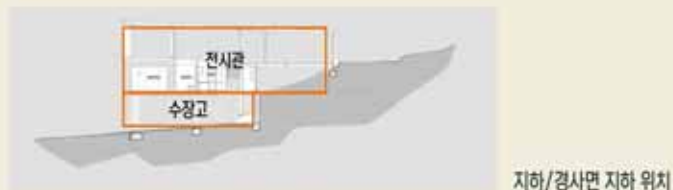
# 01 환경 탐색

수장고 위치·건축적 특성



# 01 환경 탐색

수장고 위치·건축적 특성





# 01 환경 탐색

## 소장자료의 특성

원본자료 7만여 점 중 약 85%가 종이이며 약 86%가 근·현대 시기 생산



# 01 환경 탐색

## 수장고 온·습도 운영 기준

장 소	온도기준	습도기준	주요 수장품	
1수장고	20℃ ± 4℃	50% ~ 60%	건서류, 서화류, 무서류 등	
2수장고	재1실	20℃ ± 4℃	50% ~ 60%	사진류, 의복류 등
	재2실	20℃ ± 4℃	50% ~ 60%	도자기류, 유물류 등
	재3실	20℃ ± 4℃	40% ~ 50%	금속류, 무구류 등
3수장고	재1실	20℃ ± 4℃	50% ~ 60%	목재류, 기록화류
	재2실	20℃ ± 4℃	40% ~ 50%	무구류



## 01 환경 탐색



### 해충 유입 가능성

주변 자연환경 특성  
사무공간 밀접



### 온·습도 안정화 필요

노후된 건축물 및 공조시설  
외기의 영향



### 자료 손상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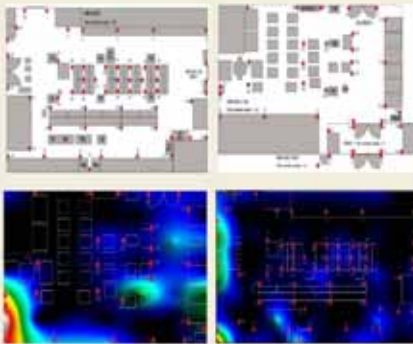
환경 영향이 큰  
유기재질 자료가 다수

## 02 데이터 수집

## 02 데이터 수집

### 수장고 유해생물종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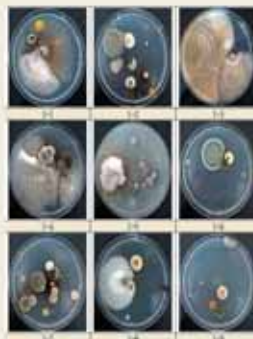
- 해충 조사



## 02 데이터 수집

### 수장고 유해생물종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 균류 조사



포집지점	공기면유균		
	1차	2차	3차
1수장고-1	72 cfu/m <sup>3</sup>	8 cfu/m <sup>3</sup>	34 cfu/m <sup>3</sup>
1수장고-2	82 cfu/m <sup>3</sup>	12 cfu/m <sup>3</sup>	14 cfu/m <sup>3</sup>
2수장고-1일	70 cfu/m <sup>3</sup>	0 cfu/m <sup>3</sup>	10 cfu/m <sup>3</sup>
2수장고-2일	62 cfu/m <sup>3</sup>	0 cfu/m <sup>3</sup>	0 cfu/m <sup>3</sup>
2수장고-3일	100 cfu/m <sup>3</sup>	8 cfu/m <sup>3</sup>	2 cfu/m <sup>3</sup>
2수장고 전실	132 cfu/m <sup>3</sup>	8 cfu/m <sup>3</sup>	4 cfu/m <sup>3</sup>
3수장고-1일	64 cfu/m <sup>3</sup>	48 cfu/m <sup>3</sup>	6 cfu/m <sup>3</sup>
3수장고-2일	156 cfu/m <sup>3</sup>	64 cfu/m <sup>3</sup>	4 cfu/m <sup>3</sup>
수장고 공동전실	68 cfu/m <sup>3</sup>	116 cfu/m <sup>3</sup>	34 cfu/m <sup>3</sup>
특수자료실	800 cfu/m <sup>3</sup> 이상	30 cfu/m <sup>3</sup>	4 cfu/m <sup>3</sup>

## 02 데이터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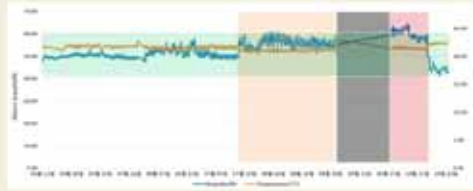
### 수장고 유해생물종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 온습도 및 공기질 조사



구분	측정위치	온도(°C)	습도(%)	PM10(μg/m³)	PM2.5(μg/m³)	CO2(ppm)	CO(ppm)	NO2(ppm)
제1수장고	상단	48.5	55.0	150.0	75	0.0040	0.01	0.0000
	하단	46	4	440.1	0	0.0000	0.01	0.00017
제2수장고	상단	20.9	7.7	251.0	0	0.0000	0.08	0.00006
	하단	48.1	7	441.0	0	0.0000	0.01	0.00019
제3수장고	상단	40.9	5.5	158.8	0	0.0000	0.01	0.00010
	하단	30.5	7.7	177	0	0.0000	0.01	0.00010
제4수장고	상단	31.0	9.8	178.7	0	0.0000	0.01	0.00010
제5수장고	상단	30.1	7	140.8	0	0.0000	0.00	0.00017

공기질 조사 데이터



온습도 조사 데이터

## 02 데이터 수집

### 자료 상태검사 및 평가

#### 상태 검사

- 자료의 특성과 손상 양상 파악

#### 상태 평가

- 손상 등급을 분류(1~3등급)  
- 자료의 상태에 대한 내부기준

#### 객관적 지표(수치화)

- ① 자료 보존 중장기 계획 수립 근거
- ② 자료 활용에 대한 지표
- ③ 보존환경 개선에 대한 지표

## 02 데이터 수집

### 자료 상태검사 및 평가

- 기본정보 : 자료명, 자료번호, 수령, 유형, 규격, 재질
- 자료상태 : 손상유형(파손, 오염, 변색 등), 상태측정(산성도, 색도)

상태검사 항목

구분	의미	세부내용	
손상 유형	파손	물리적 형태 변화	결실, 구김, 찢김, 균열, 박락, 뒤집힘, 마모
	오염	자료 외 이물질	먼지, 알갱이, 점착제, 테이프, 송-근 잔해
	변색	색 변화	달·뒤색, 황변
	부식	화학적 상태 변화	산성화, 녹, 균류발생, 초산화
기타	그 외	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록이 필요한 손상	
상태 측정	산성도	수소이온농도(pH)	산성화 정도 측정
	색도	측색	색 변화 측정



## 03 의미 발견

# 03 의미 발견

## 자료 가해충(다듬이벌레) 발생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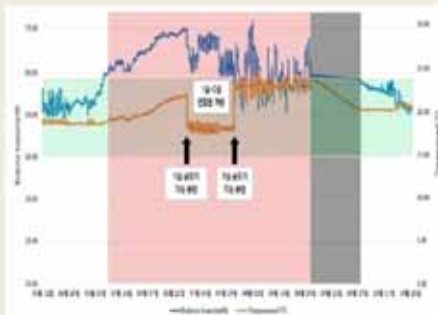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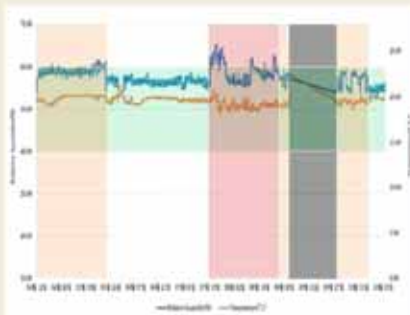
- 노후 목재바닥에서 전체 발생의 88%를 차지하여 먹이원 의심
- 가장 많이 발생한 수정고에 중요 유기재질 자료 다수
- 소독 및 관리를 통해 개체 수 감소했으나 근본적 방제 어려움

학 명(属)	사 진	비 고
해다듬이벌레 (다듬이벌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충 나무껍질층으로 불리는 지름, 목재 가해충으로 6mm 이하의 작은 크기</li> </ul>
말다듬이벌레 (다듬이벌레목)		
목질그리개 (그리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충으로 유입 추정</li> <li>• 다른 곤충 사체 섭식</li> </ul>



# 03 의미 발견

## 적정 온·습도 조성 문제



## 03 의미 발견

시설 및 관리의 영향



노후 항온항습 장비



해충 유입 경로



운영 관리상 문제

## 04 문제 해결

# 04 문제 해결



단기 개선



중·장기 계획



그리고...?

# 04 문제 해결

## 단기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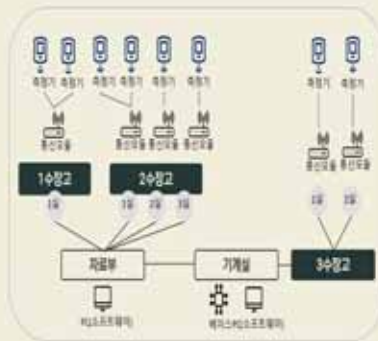
실시간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알람



신속한 조치 및 개선





## 04 문제 해결

### 단기 개선사항

공조 관리 강화



소독 및 환경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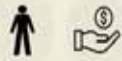


해충 유입경로 차단



## 04 문제 해결

### 중·장기 계획 수립



노후 수장고 시설 개선



수치화된 데이터로 근거자료 제시



## 05 환류 및 확장

## 05 환류 및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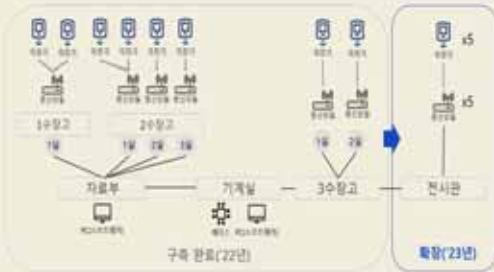
### 보존환경의 완성

완전무결한 자료 보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 05 환류 및 확장

수장고-전시관으로 확장



실시간 온습도 모니터링 설치



태이형형 벽면형 스탠드형



진열장 유형별 온·습도 비교

# 05 환류 및 확장

수장고-전시관으로 확장



등급(상태등급)	기준	조치 우선순위
1	'중'이 한 개 이하이고 '감'이 없는 경우	3점점
2	'중'이 두 개 이상이고 '감'이 없는 경우	2(반입검토)
3	'감'이 한 개 이상 있는 경우	1(반입검토)

전시자료 상태검사 및 교체

?

그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사례발표 2

---

지역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한 현충시설 활성화

---

배원경(제암리3·1운동 순국기념관 학예연구사)

## 지역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현충시설 활성화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학예사 배원경

### 1. 지역문화자원 현황



경상남도관광진흥위원회

#### 화성3·1운동만세길 안내지도



## 2.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전시 개편 현황 - 상설전시



## 2.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전시 개편 현황 - 특별전시



2017  
한·중·불 기획전  
<화성, 끝나지 않은 역사>

2019  
화성3·1운동100주년  
특별전  
<화성독립운동가>

2021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개관20주년특별전  
<인파>

2022  
화성지역 미전수  
독립유공자 훈장전  
<함께 기억하다>

## 2.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전시 개편 현황 - 찾아가는 전시



## 2.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전시 개편 현황 - 작은 전시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소셜에 담다



일제의 선전수단,  
그림엽서



독립의 손짓,  
기증의 손길



## 2.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전시 개편 현황 - 작은 전시



독립운동가를 수감하다



동행, 화성독립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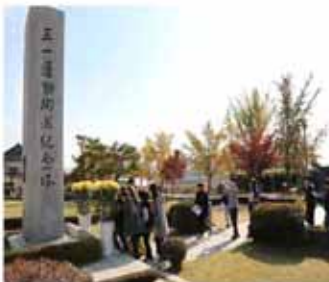


입체경 속 제국주의의 시선

## 3.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교육 현황



- 교육명 : 제암리에서 듣는 3·1운동이야기
- 교육개요
  -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1학급 (30명 내외)
  - 장소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 교육내용
  - 사회교과와 연계하여 3·1운동과 화성3·1운동의 전개과정 학습
  - 전시실 및 유적지 탐방을 통한 제암리·고주리 학살사건 이해
  - 만들기 체험을 통해 화성 독립운동사를 더욱 친근하게 이해
- 교육운영



차시	시간	학습요소	내용	
현 장 교 육	도입	10	학습목표제시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소개 · 학습목표 제시
	전개1	30	3·1운동과 화성지역3·1운동	· 3·1운동 배경과 화성지역 3·1운동 전개과 정 강의
	전개2	50	전시실 탐방	· 송산 서산지역, 함남 팔탄지역, 우정 장안지 역의 만세운동 특징 ·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 전개과정 이해
	전개3	40	만들기 체험	· (5학년) 우정 장안 입체지도 만들기 · (6학년) 제암리 아포디언 복 만들기
	정리	10	마무리	· 전체 내용 정리 · 설문지

### 3.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교육 현황



- 교육명 : 유물로 탐구하는 화성3·1운동
- 교육개요
  -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1학급 (30명 내외)
  - 장소 : 각 학급 및 온라인
- 교육내용
  -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에 대한 지식 및 가치 학습
  - 화성의 독립운동을 나타내는 유물을 학습자 스스로 탐구
- 교육운영

차시	시간(분)	학습요소	내용
1차시	도입 5	학습목표 제시	- 화성지역 3·1운동 전개과정 탐구 -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 특징 이해
	전개1 10	3·1운동 배경	- 3·1운동 배경과 전개과정 이해
	전개2 10	화성지역 3·1운동	- 화성 3·1운동 개요 - 숭산 서신지역, 향남 월탄지역, 우정 장안지역의 민세운을 특징
	전개3 10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	- 일제의 폭력과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 - 학살사건 이후의 상황
평가 5	마무리	- 전체 내용 정리 - 다음차시 안내	
2차시	도입 5	학습목표 제시	- 유물계 대한 탐구와 이해 - 전시실 관상기와 도록 만들기 활동 이해
	전개1 5	관상기 설명	- 유물계 대한 탐구 진행
	전개2 25	만들기 활동	- 관상기 만든 전시실 만들기 진행 - 만든 전시실계 대한 도록 만들기 진행
	전개3 5	발표	- 나만의 전시실 또는 도록 발표
	평가 5	마무리	- 수평평가 및 마무리

### 3.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교육 현황



- 교육명 : 전시물로 살펴보는 화성지역 3·1운동
- 교육개요
  - 대상 : 중·고등학교 1학급 (30명 내외)
  - 장소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 교육내용
  - 역사교과와 연계하여 지역별 3·1운동의 특징 이해
  - 전시실 및 유물 탐구를 통한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 이해
  - 독립운동사와 학살사건을 알리는 체험활동 실시
- 교육운영

차시	시간	학습요소	내용
현충교유	도입 10	학습목표 제시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소개 - 학습목표 제시
	전개1 30	3·1운동과 화성지역 3·1운동	- 3·1운동 배경과 화성지역 3·1운동 전개과정 살펴
	전개2 50	전시실 탐방	- 숭산 서신지역, 향남 월탄지역, 우정 장안지역의 민세운을 특징 -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 전개과정 이해
	전개3 40	만들기 체험	- 한국의 독립과 평화 만들기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 알리는 활동 진행
	평가 10	마무리	- 전체 내용 정리 - 상문기

#### 4. 화성3·1운동만세길 교육 현황



- 교육명 : 오조봇과 함께하는 독립마을 한바퀴
- 교육개요
  - 대상 : 초등학교 3~4학년 1학급 (30명 내외)
  - 장소 : 화성3·1운동만세길
- 교육내용
  - 우리 지역 특징과 우정·장안 지역 만세운동 이해
  - 만세길을 직접 걷는 현장 답사 프로그램 제공
  - 오조봇을 활용한 코딩교육을 병행하여 복합적 교육 제공
- 교육운영

시간	내용	장소
10분	- 인사 및 만세길 소개 및 학습목표 제시	화성3·1운동만세길 방문자센터
20분	- 3·1운동 및 화성3·1운동 전개과정 강의	
40분	- 화성의 독립운동가 알아보기	만세길
40분	- 만세길 걷기 (만길방문자센터-회수경찰관주재소터)	
40분	- 오조봇을 활용한 만세길 탐방 체험	화성3·1운동만세길 방문자센터
10분	- 설문지 작성 및 묵념	화성3·1운동만세길 방문자센터

#### 4. 화성3·1운동만세길 교육 현황



- 교육명 : 화성, 4월 3일의 이야기
- 교육개요
  - 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1학급 (30명 내외)
  - 장소 : 화성3·1운동만세길
- 교육내용
  - 화성독립운동사와 우정·장안 지역 만세운동 이해
  - 만세길을 직접 걷는 현장 답사를 통해 독립운동 체험
  - 팝업북 만들기 활동을 통해 만세길 전체 이해
- 교육운영

시간	내용	장소
10분	- 인사 및 일정 소개	화성3·1운동만세길 방문자센터
20분	- 만세길 소개 및 학습목표 제시	
20분	- 3·1운동 및 화성3·1운동 전개과정 강의	만세길
40분	- 만세길 걷기 (화성3·1운동만세길방문자센터-회수2리 마을길)	
40분	- 우정·장안 만세운동 전개과정 알아보기	화성3·1운동만세길 방문자센터
40분	- 만세길 유해지 팝업북 만들기	
10분	- 설문지 작성 및 묵념	

#### 4. 화성3·1운동만세길 교육 현황



- 교육 명 : AR 속 숨겨진 화성3·1만세길
- 교육개요
  - 대상 : 중·고등학교 1학년 (30명 내외)
  - 장소 : 화성3·1운동만세길
- 교육내용
  - 실감콘텐츠와 역사 교과를 연계한 답사 교육 제공
  - 실감콘텐츠를 통한 만세운동 체험 및 전개과정 이해
  - 일부지점 3D 구현으로 유허지 탐구 및 관찰
- 교육운영

시간	내용	장소
10분	· 인사 및 만세길 소개, 학습목표 제시	화성3·1운동만세길 방문자센터
20분	· 3·1운동 및 화성3·1운동 전개과정 강의	
40분	· AR 미션을 통해 우정·장안 만세운동 알아보기 (방문자센터-화수주재소터)	만세길
40분	· 화성 독립운동가 차병해 생가 탐방(버스 이동)	
10분	· 설문지 작성 및 폭넒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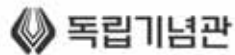
---

##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app의 활용

---

김아람(독립기념관 고객소통부)

#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모바일앱 운영 사업



## CONTENTS

---

- 01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모바일 앱 소개
- 02 현황
- 03 (2020~23년) 개선 및 운영 경과
- 04 향후 사업 의견 교류 및 Q&A



## 02 현황

### 01 현재

##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현황

<b>탑재기관</b>	전국 총 101곳
<b>전시품수</b>	7,077건
<b>앱배포처</b>	(Android) Google Play, 윈도우(OS) Apple Appstore
<b>자원운영</b>	민간 클라우드 활용 (하이퍼클라우드)
<b>운영기관</b>	독립기념관
<b>다운로드</b>	86,675건 (2023년) / 155,491건 (2020-22년 누적)
<b>수상 등</b>	2022년 특허 등록 - ICT 기반 전시관 관람 인증 서비스 제공 시스템 (독립기념관) 2020-23년 문화안전부 공공앱 성과추진 최고등급 (유지 등급) 2021년 국가보훈처 정부혁신 우수사례 장관상

## 03 개선 및 운영 경과

### 01 2020년

02 2021년\_1

03 2021년\_2

##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개선 및 운영 경과

**운영시작** 2020. 4. (코로나 발생으로 휴관과 개관률 반박)

**운영내용** 독립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여수항일운동기념탑(기존 3곳) 전시 안내  
독립기념관 모바일 국군 휴가인증 프로그램 운영 시작 (20. 11. 5.)  
태원문병길기념관, 안동근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5곳) 추가 운영

**시스템 개선** 독립기념관 모바일 국군 휴가인증 프로그램 관리사이트 통합 (20. 12.)  
- 기존 오픈리인 시스템과의 통합

※ (참고) 국군 휴가인증 프로그램 방식 변경 : 개인 내키시간 원선 제거, 종이 등 차변 점검, 통합안내센터 업무경감 효과

**기존 방식**

- 독립기념관 방문
- 종합안내센터에서 PC로 개인정보 등록
- 휴가증 확인후 군복착지(소켓프 등시) 배부
- 전시관 방문 후 지정 위치에서 스캔프 낭인 (4곳)
- 2시간 경과 후 종합안내센터 재방문
- 휴가증에 최종확인 스캔프 낭인
- 군부대에 낭인한 휴가증 제출

→

**변경 방식**

- 방문전 개인 휴대용 앱에서 개인정보 등록
- 독립기념관 방문
- 앱 실행 후 전시관 4곳 방문
- 전시관 Beacon의 위치정보 연동,  
관련 연동 오류를 줄여 주 인증 (자동 방문확인)
- 앱 또는 웹페이지의 확인증을 군부대 제출



## 03 개선 및 운영 경과

- 01 2020년
- 02 2021년
- 03 2022년
- 04 2023년

###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개선 및 운영 경과

**시스템 개선**

- 전체 현충시설·기념관 기관소개 및 전시품에 대한 중국어/일본어 음성, TEXT 안내 기능
- 전체 전시품 콘텐츠를 대상으로 콘텐츠 이용 통제 확대
- 탑재 현충시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편의를 위해 지역별 안내, 기관명 검색 기능
- 국군 용어인종 프로그램의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 적용 등 기능 보완
- 기관별 메인 화면부 통합메시 나열, 탑재 가능



기관 검색, 지역구분      하단부 나열, 삽입

## 03 개선 및 운영 경과

- 01 2020년
- 02 2021년
- 03 2022년
- 04 2023년

###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개선 및 운영 경과

**모바일앱 고도화 사업으로 기능 확대 개발 추진 (8~12월)**  
 사업예산: 1억원    목표: 앱 다운로드수 전년 대비 20% 확대 (65,143건)

- 

**육군 휴가보상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모바일인증 기능 개발 (총 5개소)**  
 대상 : 백범김구기념관, 연중근의사기념관, 호남호국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문봉정기념관
- 

**개인 관람객 대상 미션형 전시관람 기능 및 플랫폼 개발**  
 전시관 관람객의 모바일앱 이용을 높이고 자율 관람을 돕는 QR코드 이벤트 기능 개발  
 향후 타 기관 확대 가능 플랫폼 형태
-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다운로드&리뷰’ 이벤트 추진**  
 이벤트기간: 2022. 6. 1. - 8. 31.  
 앱 사용 후 리뷰와 이용 화면 캡처 후 전송하면 완료되는 형태의 이벤트 운영 예정 (독립기념관 진행)

## 03 개선 및 운영 경과

- 01 2020년
- 02 2021년
- 03 2022년
- 04 2023년

###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개선 및 운영 경과

**탑재기관 및 제공 콘텐츠 확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탑재 기관	3	6	87	101
콘텐츠	1,104	1,588	3,769	6,182

**앱 다운로드수 대폭 확대**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비교
Google	29,093	47,186	162.2%
Apple	25,068	46,140	184.1%
한스토포	125	688	550.4%
합계	54,286	94,014	173.2%

**관련 개발 기능 발명 특허 등록 ('22.2.)**

- 출원번호 제10-2360751호
- 발명명칭 ICT기반 전시관 관람 인증 서비스 제공 시스템  
(System for providing exhibition visit verification service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03 개선 및 운영 경과

- 01 2020년
- 02 2021년
- 03 2022년
- 04 2023년

###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개선 및 운영 경과

**신규 개발 기능에 대한 시범 서비스 수행 및 적용**  
(타 기관 적용 가능한 기능 안내)

- 육군 후기보상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모바일인증 기능**  
배전, 운영PC 등 운영환경 구비될 경우, 타 기관 확대 적용 운영 가능
- 타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한 전시관 이벤트 기능**  
[전단지 및 서비스 관리] > [QR코드 관리] / [이벤트 뒀나 관리] 기능 활용  
시스템에서 제작된 QR코드를 활용, 전시관 내부 안내로 이벤트 실시 및 방문자 관리
- 행정안전부 '공공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성과측정' 4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누적 다운로드, 전년 대비 성장률, 앱데이터 최신성, 앱 만족도, 하위 OS 지원 등  
10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906개의 공공앱 대상 성과 측정 실시

## 04 의견 교류

### 01 FAQ, Tip

### 02 의견 교류 및 Q&A

## 향후 사업의견 교류 및 Q&A



Q 입력을 다 했는데, 앱에 안 나타나요 (1)

A [기념관, 전시품 관리] > [기념관 기본정보] > \*APP 노출 여부\*에서 \*노출\*을 선택해 주세요.



Q 입력을 다 했는데, 앱에 안 나타나요 (2)

A [시스템 관리] > [데이터 연동 수동관리] > \*콘텐츠 수동 적용 실행\*을 누르고 앱을 다시 시작하세요.



Q 메인 하단 아이콘에 다른 것처럼 메뉴를 더 넣고 싶어요.

A [전시품 전시안내 관리] > [기념관 APP 메인관리] > 가운데 \*추가\*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하세요.

Tip

- \*'특별 전시' 차림 불특정하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전시도 (가상)전시권 생성 후 전시품 등록하여 안내 가능 [TTS 기능을 활용하여 오디오 가이드로 활용하는 것 추천]
- 영상은 [콘텐츠 및 서비스 관리] > \*콘텐츠 등록\* 하여 등록된 전시품과 통합시켜주면 서비스 가능

## 04 의견 교류

### 01 FAQ, Tip

### 02 의견 교류 및 Q&A

## 향후 사업의견 교류 및 Q&A

-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관련 기능 개선 의견
- 변경된 UI에 따른 상단 '이달의 현충시설' 노출 ⇒ 기관별 원하는 月 선택통보
-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 문의처

독립기념관 고객센터부 김아람 주임  
041-560-0248 / kar8422@k815.or.kr

---

# 감사합니다

---



■ 사례발표 3

---

프랑스 에코뮤지엄 운영 사례를 통해 본  
현충시설 협력망 사업의 방향성

---

배은석(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에코뮤지엄연구소 소장)

# 프랑스 에코뮤지엄 운영 사례를 통해 본 현충시설 협력망 사업의 방향성

배은석(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국에코뮤지엄연구소 소장)

## 목차

- I. 서론: 에코뮤지엄의 발명과 수용
- II. 에코뮤지엄 개념에 대한 논의
  - (1) 르네 리바르의 정의
  - (2) 오하라 가즈오키의 에코뮤지엄 구성 요소
- III. 프랑스의 에코뮤지엄과 FEMS
  - (1) 에코뮤지엄 탄생의 배경
  - (2)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 (3)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 연대(FEMS)
- IV. 결론: 국내 현충시설에 에코뮤지엄 적용 가능성

## I. 서론: 에코뮤지엄의 발명과 수용

에코뮤지엄은 인간을 포함하고 자연·생태와 산업을 포함한 문화·유산을 모두 아울러서 특정 유산지역을 뮤지엄의 범주로 지정하고 지역 전체가 유기적으로 구성되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sup>1)</sup> 에코뮤지엄의 발명가인 프랑스의 박물관학자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s Henri Rivière)와 위그 드 바린(Hugues de Varine)은 1960년대 말에 산업유산지역의 재생을 고민하던 중 1891년 개장된 세계최초의 야외민속·문명사박물관인 스웨덴의 ‘스칸

1) 배은석, 『에코뮤지엄: 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 북코리아, 2013, 6쪽.

센'(Skansen) 야외박물관(open air museum) 개념에서 영감을 받는다. 지역의 전통가옥, 생태환경과 전통까지 박물관의 영역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지역 전체가 박물관이 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위그 드 바린은 이 새로운 개념을 에코뮤지엄이라 명명한다. 이는 생태를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와 박물관을 의미하는 뮤지엄(museum)을 합성한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이다. 이 용어는 1971년 제9회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총회에서 소개된다.<sup>2)</sup> 에코뮤지엄은 기존 전통박물관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문화현상 내지 운동으로 프랑스, 이탈리아를 필두로 하는 유럽과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로 확산되었다.<sup>3)</sup>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에코뮤지엄을 수용하는데, 1970년대에 용어를 수용하고 1980년대에는 농촌에 에코뮤지엄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농촌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1990년대에는 에코뮤지엄학(ecomuseology)이 발전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일본에서 에코뮤지엄학이 융성하게 발전하는데 기여한 사람은 국립 요코하마 대학 건축학부 오하라 가즈오키 교수이다. 그는 일본에코뮤지엄학회(Japanese Ecomuseological Society, JECOMS)를 통해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코뮤지엄 이론과 실천을 논의하는데 기여해오고 있다.<sup>4)</sup>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에서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1984년에 수용하였고, 명칭을 생태박물관(生態博物館)으로 하였다.<sup>5)</sup> 에코뮤지엄은 매우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열린 개념이라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정의한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도 에코뮤지엄의 정의를 세 번에 걸쳐서 정의하는데 이를 리비에르의 발전적 정의라고 칭한다.<sup>6)</sup> 이는 현실에서의 적용과 그에 대한 발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오하라 가즈오키, 김현정 옮김,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아르케, 2008, 58쪽.

3) 이재영, 「프랑스 에코뮤지엄 사례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제8호, 2012, 192쪽.

4) Óscar Navajas Corral, Japan ecomuseums: Global models for concrete realities, Sociomuseology IV, Cadernos de Sociomuseologia, Vol 38-2010, pp. 217-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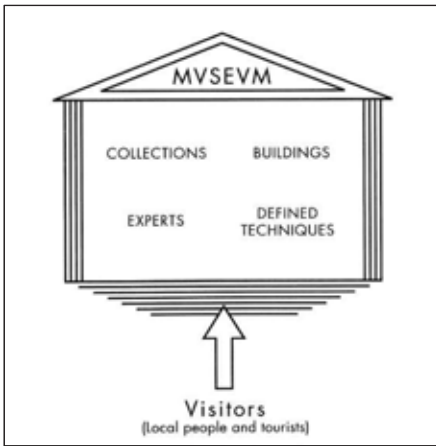
5) 오일환, 「中國의 生態博物館(에코뮤지엄)形成과 實態에 관한 연구」, 『고문화』 (6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6, 60쪽.

6) 리비에르의 발전적 정의에 대해서는 배은석, 『에코뮤지엄: 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 북코리아, 2013, 44-49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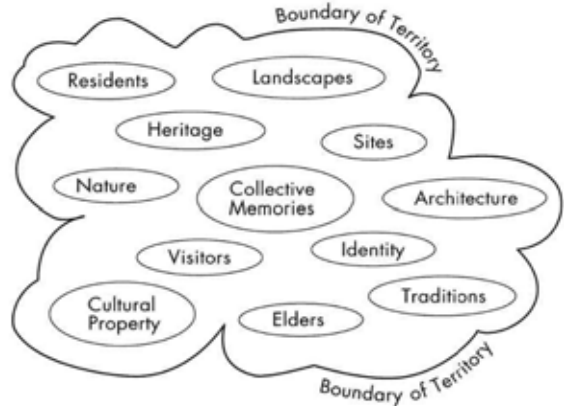
## II. 에코뮤지엄 개념에 대한 논의

### (1) 르네 리바르의 정의

르네 리바르(René Rivard)는 에코뮤지엄과 전통박물관에 대한 비교 그림을 통해서 에코뮤지엄을 정의하고 있다.<sup>7)</sup> <그림 1>의 전통박물관은 건물과 소장품, 전문가, 특정한 기술로 구성되어 정의된다.



<그림 1> 전통박물관 개념도 (René Rivard, 2011)



<그림 2> 에코뮤지엄 개념도 (René Rivard, 2011)

이는 전통적 박물관이 건물을 전제로 하여 관장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인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전시 디자이너, 보존전문가 등에 의해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진행되며, 소장품이 매우 정교하게 관리되고 지역의 주민이나 관광객으로 구성되는 관람객은 단지 방문자로 박물관을 찾는 것으로 표현된다. 반면 이와 대별되는 지점에 있는 에코뮤지엄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주민을 주인으로, 그들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지역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축적시켜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2> 에코뮤지엄은 지역,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사이트, 경관, 문화적 당위성, 주민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7) Peter Davis, *Ecomuseums A SENCE OF PLACE*, Continuum, 2011. 82-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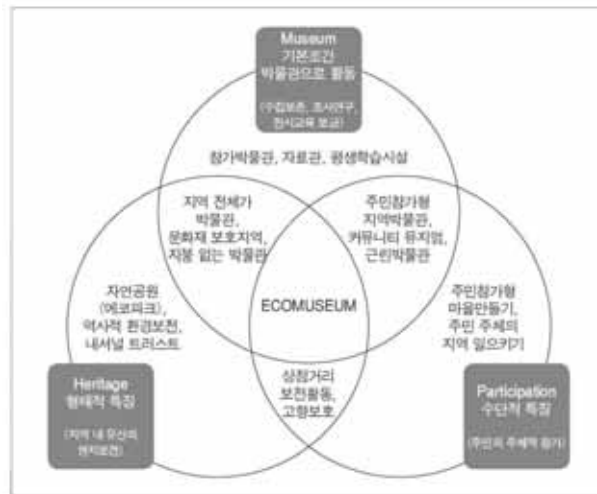


정의 내리고 있다. 그는 또한 에코뮤지엄과 자연사박물관, 생태박물관은 구별되는 개념임을 강조한다.

## (2) 오히라 가즈오키의 에코뮤지엄 구성 요소

오히라 가즈오키는 에코뮤지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설명한다. 에코뮤지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지역(territory)’을 연구 및 활동의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점이다. 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박물관 활동(Museum: 이하 M), 지역 내 유산의 현지보존(Heritage: 이하 H), 주민의 참여(Participation: 이하 P)의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때 에코뮤지엄의 활동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박물관 활동(M)은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 등 그동안 박물관이 수행해온 일련의 활동이다. 지역 내 유산의 현지보존(H)은 지역의 경관자원, 산업유산, 문화유산, 자연환경, 집단의 기억 등을 현지 보존하는 것으로 유산이 갖는 장소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의 참여(P)는 주민 스스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에코뮤지엄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이 잘 맞고, 밀접한 네트워크가 짜여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3)과 같은 개념이 성립된다.



〈그림3〉 에코뮤지엄 개념(오히라 가즈오키 大原一興, 1996)

### Ⅲ. 프랑스의 에코뮤지엄과 FEMS

#### (1) 에코뮤지엄 탄생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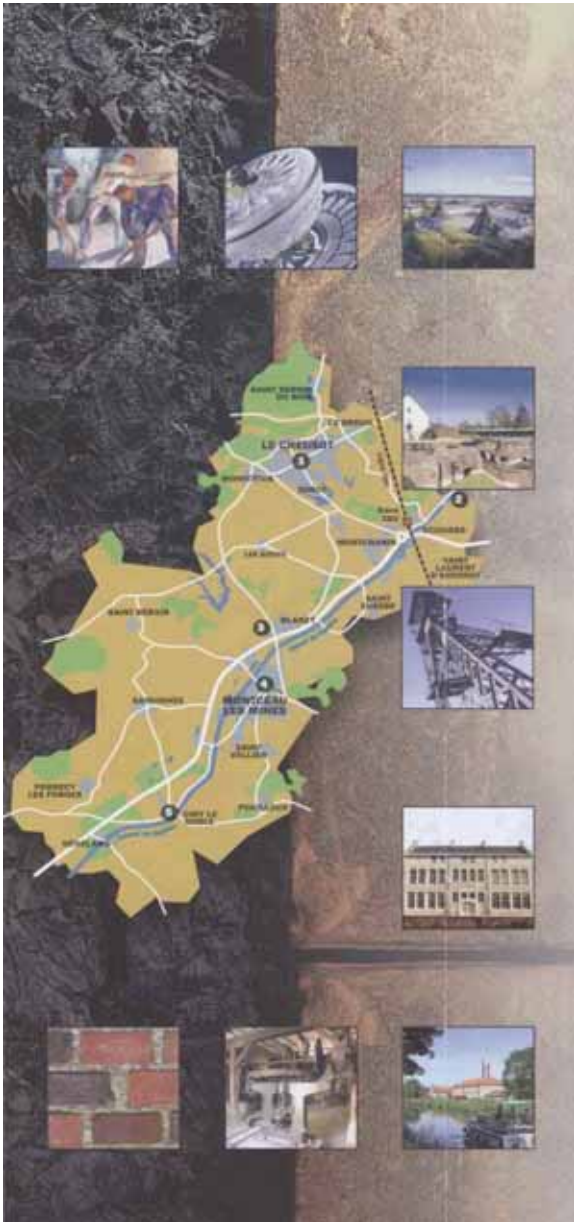
에코뮤지엄 이념의 발명 배경에는 1960년대 말 프랑스의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하는데, 1960년대 후반 프랑스는 급격히 도시화 되고 한편으로는 농촌의 과소화가 가속되었다. 권위와 독선으로 군림 해 온 드골 체제에 대한 반발과 전후 경제 번영이 가져온 소비 만연의 사회 풍조에 대한 거부,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반문 등 급진적인 사상운동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sup>8)</sup> 이 시대에는 환경유산의 보전의식, 도시와 농촌의 균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루소에게 기원을 둔 자연보호사상과 반공해운동과 같은 환경보호, 자연건강법이나 동양의학과 같은 자연적인 것에 대한 옹호,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핵문제와 같은 기폭제 등을 배경으로 전개해 왔다.<sup>9)</sup> 이처럼 프랑스에서의 에코뮤지엄 운동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적 논의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제시되었다.

#### (2)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은 본격적인 형식을 갖추고 출범한 실험적 에코뮤지엄의 초기 사례로, 초기에는 하나의 중핵박물관과 네 개의 위성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시작되었다. 즉 르크뢰조(Le Creusot)에 위치한 베르리 성의 ‘사람과 산업박물관’이 중핵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관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에코뮤지엄의 구조를 완성한다. 에퀴스(Ecuisses)에 위치한 운하박물관, 블랑지(Blanzy)에 위치한 광산 박물관, 몽소레민(Montceau-les-Mines)의 학교박물관, 씨리르노블(Ciry-le-Noble)의 벽돌공장 등의 위성박물관으로 구성된다. 각 박물관은 서로 동등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을 연결하는 발견의 길이 각 관을 서로 서로 연결하고 있다. 발견의 길을 따라서 만나게 되는 지역의 모든 문화, 유산, 자연, 사람, 생활양식 등이 에코뮤지엄을 이루게 하는 요소인 것이다. 부르고뉴 지역의 르크뢰조, 몽소레민, 시리르노블을 잇는 이 지역은 주요 산업 활동이 유리 제조업, 벽돌 제조업 등에서 광산에서의 석탄채굴, 철강 산업 등으로 이어지면서 집중적으로 발달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관련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하면서 지역 전체가 침체의 위기를 맞은 곳이다. 그러나 지역의 주민들은 과거의 산업유산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8) 서울대학교 불어문화연구소, 『프랑스 하나 그리고 여섯』, 강, 2008, 524쪽.

9) 오히라 가즈오키, 앞의 책, 43쪽.



〈그림4〉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지도  
(출처: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브로셔)

광산과 철강 산업의 거점 도시였기에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연구하면서, 노력과 새로운 시도로 지역을 차별화 하는데 성공하였다.<sup>10)</sup>

그림은 중핵박물관인 베르르성과 에퀴스에 위치한 운하박물관, 블랑지에 위치한 광산박물관, 몽소레민의 학교박물관, 씨리르노블의 벽돌공장 등 다섯 개의 사이트로 이루어진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의 지도이다. 연구자는 2015년 에코뮤지엄의 명명자인 위그 드 바린의 안내로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을 답사할 기회를 가졌는데, 당시 바린이 안내에 따라서 각 사이트를 방문하여 기록을 남겼기에 이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sup>11)</sup>

연구자는 201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이재영 교수 답사팀의 일원으로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을 1차 조사한 바 있다.<sup>12)</sup> 이후 2015년에 에코뮤지엄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이며 명명자인 위그 드 바린의 안내로 크뢰조몽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의 다섯

10) 배은석, 『에코뮤지엄 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 북코리아, 2013, 55-58쪽.  
 11) 배은석, 『신박물관학 시대의 큐레이터』, 북코리아, 2018, 49-70쪽.  
 12) 이하 내용은 배은석, 「기억의 보존과 상처의 치유를 통한 창조적 모험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박물관학보』, 통권24호, 한국박물관학회, 2013의 내용을 참조하고 새롭게 구성함.

개의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사이트에 대한 소개는 위그 드 바린이 우리 팀<sup>13)</sup>을 안내한 순서에 따라서 하고자 한다. 크뢰조는 파리에서는 가르드리옹(Gare de Lyon)에서 테제베(TGV: Train à Grande Vitesse)<sup>14)</sup>를 탔을 경우 도착하기까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

일행이 크뢰조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였다. 역 앞에서 위그 드 바린과 에코뮤지엄 관계자가 우리를 맞아주었고, 우리는 바린의 차와 에코뮤지엄의 자동차를 타고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바린의 안내를 받으면서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을 관람하였다.

#### ① 벽돌공장(La Briqueterie)

강을 따라서 달려서 처음 도착한 사이트는 씨리르노블 벽돌공장이었다. 광활한 공장 터에 벽돌로 만든 공장 건물이 여러 채 있고, 공장 내외부에는 카트로 짐을 실러 나르기 위한 레일이 놓여있다.

에코뮤지엄의 큐레이터는 우리 일행의 일부가 탈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소유의 소형 자동차를 갖고 안내하였으며, 공장 터를 돌면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를 설명해주었다. 에코뮤지엄 사무실에는 리플릿과 책자 등이 있고, 작은 진열장에 공장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서를 진열하여 두었다. 1893년에 건축된 베레보도(Vairet-Baudot) 벽돌공장은 지역의 산업에 이바지하였고 1967년에 작업을 멈추고 폐쇄된다. 이곳에는 아직도 생산 기계, 운송 레일, 벽돌을 굽던 가마와 굴뚝 등이 남아 있다. 현재는 전시를 통하여 벽돌과 타일의 생산 공정, 기술 및 노하우, 공장의 역사에 대해 보여준다. 체험 및 전시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을 맞이하며, 특히 현대 예술가들과 연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다.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에 이 지역의 실재 특산품으로 공장에서 만들었던 철분이 들어간 흑벽돌(brique noire de fer)이 거푸집에 담기고 완제품이 되기까지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다. 몽소와 블랑지의 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은 이 벽돌 공장을 가동하는 연료가 되었으며, 이 벽돌 공장에서 생산된 벽돌은 운하를 타고 각지로 판매되어 나갔

---

13) 덕성여대 법학과 재학중인 강서윤 외 3명의 학생이 교내 공모전에 프랑스의 에코뮤지엄 가운데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답사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2016년 4월경에 한국외국어대학교로 필자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었다. 학생들은 박물관학보에 게재된 논문을 읽고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교내 공모전에서 최고점을 득점하여 최우수상을 획득하게 되고, 그 해 7월에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을 답사할 기회를 갖게 된다. 마침 그 무렵에 파리의 하수도박물관 답사 차 프랑스에 가게 된 필자는 이들과 합류하여 에코뮤지엄을 답사하게 된다.

14) 프랑스 GEC 알스톰사가 제작한 고속전철.

다. 이렇게 지역의 산업은 서로 연계하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였다.

### ② 학교박물관(Musée de la Maison d'Ecole)

이 건물은 1880년 몽소 레민의 소녀들을 수용하기 위한 공립학교로 건축가 뒤락(Dulac)에 의해서 설계되었다. 그 후 1882년에 공립학교가 개교하게 된다. 당시 몽소레민 지역에 처음 세워진 학교로 광부를 위한 직업 교육이 아니라 시민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매우 뜻 깊은 건물이다.<sup>15)</sup>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의 하나의 사이트이며, 학교박물관이라고 표기되거나 불리기도 한다. 학교 박물관은 1988년 역사적 건축물 리스트에 등재되었다. 5개의 교실 중 2개는 19세기말에서 1950년대의 교실 모습을 재현하여 전시되어 있다. 그 외에 현재는 20세기 전문적인 학교 교육과 교사에 대한 기획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박물관의 활동으로 출판과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 ③ 광산박물관(Musée de la Mine)

블랑지(Blanzy)에 위치한 광산박물관에는 채굴을 하면서 살아온 지역민의 삶과 산업 현장의 자취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탄광촌의 삶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가 준비되어 있다. 광산박물관은 ‘광산·광부협회(l'association La Mine et les Hommes)’라는 고고학 연구협회와 블랑지시가 결연을 맺었다. 이 협회의 노력으로 블랑지의 탄광을 허락받아 사닥다리와 90명의 광부가 일했던 광산의 작업현장인 채굴물 집적장 등의 시설을 되찾았다. 건물로 들어가서 우선은 그림 오른쪽 위와 같은 영상 시설이 있어서 탄광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비디오 등의 영상자료를 볼 수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 직원의 안내를 받아 광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곳에는 석탄을 나르던 수레와 레일, 사고 방지를 위한 알람시설 등이 있다.

이곳의 소장품은 크리스탈 결정, 1881년의 사진 앨범, 세고(Segaud)의 테생, 뒤프티(Dupetit)의 테생, 회화류, 안전에 관한 벽보, 세라믹 등이 있다. 광산박물관 설명글에는 ‘주민들이 이 석탄 광산 유적지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된 노동과 갱내의 가연성가스, 희생자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축제들, 석탄광부들 간의 동지애와 연대감, 탄광촌 경영자의 가족적인 경영을 기억하는 자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국가경제에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이곳에서 1810년부터 2000년까지 2억 톤의 석탄을 블랑지의 광산에서 채굴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과연

15) 2015년 7월 17일 학교박물관 방문 시 교장 선생님 인터뷰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활동이 계속될까? 그들은 스스로 자문하고 대답한다. 지금은 물론 나중에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 수직갱도는 1992년에 문을 닫았고, 석탄채굴은 2000년에 마감했다.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에코뮤지엄은 이러한 지역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울로 관람객에게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에코뮤지엄 직원이 있어서 상설전시실과 광산체험 관리를 하고 있었고, 생존한 광부는 광산 기계를 작동하는 시연을 통하여 광산업의 이해를 돕고 있었다.

#### ④ 운하박물관(Musée du Canal)

에퀴스(Ecuisses)에 위치한 운하박물관은 손(Saone)강과 루아르(Loire)강을 연결하는 18세기 말엽에 건축된 운하를 보존하고, 상설전시로 이 지역의 산업발달에 기여한 운하를 주제로 한 역사 및 기억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에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중부지역 운하 협회(Canal du Centre Association)’가 결성되어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에 합류하였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배를 타고 강을 돌면서 지역을 유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994년에 협회는 60인승 배를 구입하여 강을 타고 수문들을 통과하면서 유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이 배의 조종을 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이 했으나 이후에는 배의 조종 및 조수역할을 위한 직원을 고용하고, 박물관에도 직원을 두어 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에코뮤지엄의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방문객이 지나간 시대의 중요한 운송과 교통수단인 운하를 타고 마을을 관광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운하박물관은 강가에 있는 작은 집을 활용하여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물 안에는 소박한 전시장이 있어서 지역의 운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과 운하의 흐름을 보여주는 디오라마, 당시 작업할 때 사용했던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바로 옆에 있는 배도 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배의 내부에는 배의 운항과 운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이 벽면 가득히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배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유물들도 전시장 안에 놓여있다.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방문객이 지나간 시대의 중요한 운송과 교통수단인 운하를 타고 마을을 관광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바린은 이 배의 입수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지역의 산업과 운송을 위해서 운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설명했다.

### ⑤ 베르리성(Château de la Verrerie)

설립 초기에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의 중핵박물관의 역할을 했던 베르리 성이 위치한 곳은 르크뢰조이다. 베르리성에는 크뢰조의 산업과 사람들을 포함하여 건물에 대한 역사가 전시되어 있다. 이 건물은 1786년부터 1832년까지는 유리 제조 공장 이었고, 1837년부터 당시 철강 산업을 이끌었던 슈네데르(Schneider) 가문의 저택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철강 산업의 쇠퇴로 슈네데르 가문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다가 1969년 르크뢰조에서 이 건물을 사게 되고, 에코뮤지엄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1973년 대중에게 공개된다. 성 안에는 가장 중앙에 슈네데르 가문의 저택으로 사용되었던 흰 외벽의 삼층 건물이 길게 있고, 원래 유리 공장의 굴뚝이었던 원추형 건물이 두 개 있으며, 별채에 철강 산업을 주제로 한 단층 규모의 전시장 건물이 있다. 원래 이 성은 슈네데르 가문의 저택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왕비의 크리스탈 제조 공장으로 지정된 성이었다. 1787년부터 왕실 소유의 크리스탈 제조 공장으로 가동되었기에 현재도 진귀한 크리스탈 유물들이 보존되고 전시되어 있다. 전시물의 범위는 19세기 이후 르크뢰조 지역과 주민의 역사를 그림, 판화, 사진, 유물, 기록, 마을 디오라마, 건축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광산노동자들의 생활과 작업을 보여주는 유물, 포스터 등도 전시되어 지역산업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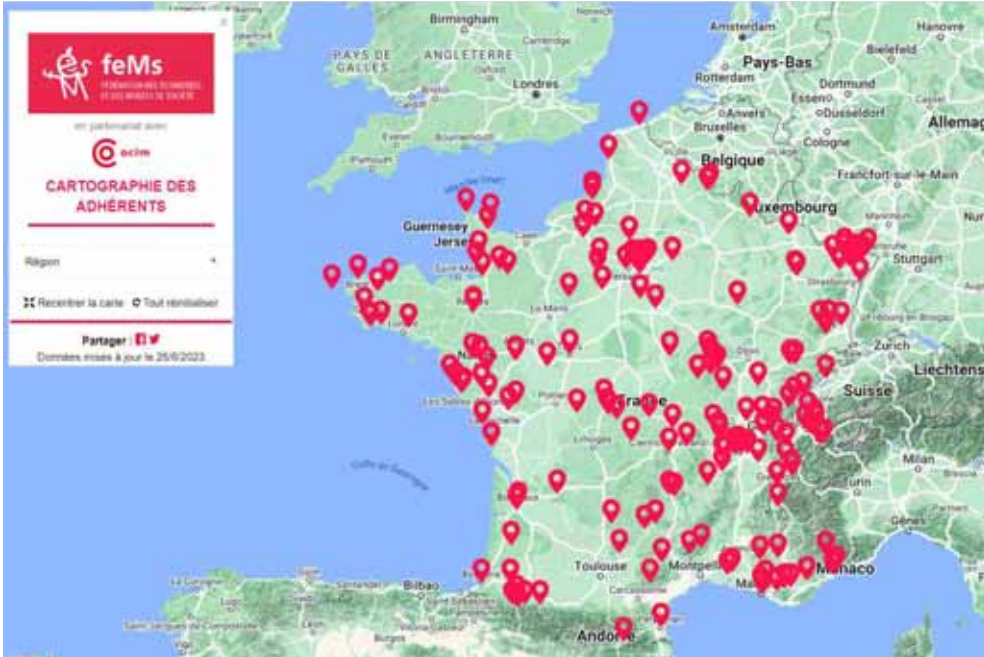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코뮤지엄이 지역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동안 전통적인 박물관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현충시설이 전통적인 박물관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해석하고, 주민과 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3)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 연대(FEMS)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네트워크하고, 에코뮤지엄이 서로 연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프랑스에는 프랑스는 물론이고 프랑스어권의 에코뮤지엄을 네트워크하고 지원하는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 연대(Fédération des écomusées et des musées de société: 이하 FEMS)의 활동이 있어서 이를 주목할 가치가 있다.

FEMS는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퀘벡) 등 프랑스어권의 200여개 회원관의 발달을 도모하며 환경의 변화에 대처해왔다. 회원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실무자 교육, 전문가 회의, 유산관광 프로그램 개발, 간행물 발간 등을 지원하고 아젠다를 제시한다(Alexandre Delarge, 2016: 4). FEMS의 활동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에코

뮤지엄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 현충시설이 서로 연계하는 협력망 구축에 유용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5〉 FEMS 지도(출처: <https://utils.ocim.fr/cartes/fems/>)

그림의 지도는 FEMS의 전국 분포 지도이다. 지도의 점을 클릭하면 기관별 개요와 함께 웹사이트가 연동이 되는데, 관람객은 이를 통하여 전시, 체험, 다양한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sup>16)</sup>

### ① 전문가 연례회의(프로페셔널 미팅)

FEMS는 전국 전문가 연례 회의를 조직한다. 이는 문화 및 관광 전문가, 연구원 및 학생에게 개방된 원탁회의 및 워크숍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문적인 경험에 대한 교류와 토론을 통하여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진다.

### ② 지역별 회의

FEMS 네트워크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매년 지역별 회의도 조직된다. 같은

16) <http://www.fems.asso.fr/> (검색일 2023. 9. 7.)



지역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의된 주제를 중심으로 회의와 교류를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 회의가 개최되는 구역을 방문하고 회원들의 상호 친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각 지역에서 FEMS의 발표에 참여하여 네트워크 개발 전략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지역별 회의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회원들에게 공유된다.

### ③ 학습일 및 공동 프로젝트 프로그램

전문가 연례회의 외에도 FEMS는 정기적으로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이를 운영한다.

FEMS는 연구의 날을 지정하여 주제 발표를 하거나, 전시회, 출판물 등을 통해 회원의 과학적 작업 및 수집을 촉진한다. 그 외에도 FEMS와 그 회원들은 프랑스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및 세미나 등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다.

### ④ 교육 및 지원

FEMS의 사명은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의 전문성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네트워크 구성원을 위한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파트너 네트워크 및 공공 기관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개입할 수 있는 교육 및 전문 지식 센터를 설립했다.

FEMS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민족학, 도시, 해양, 산업, 농촌, 섬유, 건강, 운송, 생활 컬렉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공공 지식에서 커뮤니케이션 도구 설계 및 상점 관리에 이르기까지 FEMS는 박물관의 활동을 지원하여 소속 기관의 고립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술을 제공한다.

이처럼 FEMS는 지역개발, 관광 및 방문자 서비스 전문가 연합체로서 유산의 보존, 박물관 운영, 관광, 상점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된 다양한 활동은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장려하며 에코뮤지엄과 사회박물관의 전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그 가치와 구성원의 가치를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V. 결론: 국내 현충시설에 에코뮤지엄 적용 가능성

이상에서 프랑스 에코뮤지엄의 초기 사례은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과 FEMS의 활동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에코뮤지엄의 철학과 주민운동은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재생하는 방안으로 실현되었다. 신박물관학의 조류 가운데 하나인 에코뮤지엄은 지역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중요시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박물관이다.

한국에서 에코뮤지엄에 대한 시도와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부터이다.<sup>17)</sup> 지난 20여 년 동안 에코뮤지엄의 수용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덕분에 탄광지역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 등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시도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에코뮤지엄을 표방하는 마을박물관이 출현하는데 이화동 마을박물관, 익선동 마을박물관<sup>18)</sup> 등 사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마을박물관이 등장하였고, 학선리마을박물관 사례와 같이 주민 주도의 마을박물관이 실행되기도 하였다.<sup>19)</sup> 근래에 정부의 도시재생정책과 맞물려 나타난 전주노송니우스박물관은 전주 노송동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마을박물관으로 전환한 경우이며<sup>20)</sup> 에코뮤지엄의 속성을 갖는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에코뮤지엄을 선포하여 경기만에 코뮤지엄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sup>21)</sup> 경기도에서 에코뮤지엄은 정책으로 수용되는 양상인데 경기만에코뮤지엄은 경기에코뮤지엄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있다. 2020년도에는 경기북부로 확장하였고, 2022년에는 경기남부, 동부 등 경기도 전역으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sup>22)</sup>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수용과정에서 박물관은 물론 에코뮤지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아쉬운 점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현충시설은 독립기념관과 같이 박물관의 기능을 갖추고 대중과 소통하는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

17) 원기준, 「강원도 태백 철암 빌리지움 프로젝트」, 『월간말』, 2001년도 4월호(통권 178호), 월간말, 2001, 184-185쪽.

18) 배은석, 「에코뮤지엄을 표방한 마을박물관의 실험적 시도 - 서울《익선동 마을 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28호, 한국박물관학회, 2015. 1-27쪽.

19) 배영동, 「주민 주도형 마을문화자료관 만들기의 가능성과 의의」, 『실천민속학 연구』 17호, 실천민속학회, 2011, 123~155쪽.

20) 조성실, 이정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을박물관 설립운영과 과제 : 전주노송니우스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통권제8권 제3호, 한국지역문화학회, 2021, 1-25쪽.

21) 김성균, 「에코뮤지엄의 활동에 관한 연구: 경기만에코뮤지엄을 중심으로」, 『NGO연구』 14(3), 한국NGO학회, 2019, 107쪽.

22) 경기문화재단 주최 경기에코뮤지엄 자문 회의 자료 (2021. 12. 9.)

역의 현충시설이 존재하는 의미는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지역의 향토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코 뮤지엄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공간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다. 전국의 현충시설이 지역민과 더 가까이 다가가기위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한다면 전통적인 박물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박물관을 향한 행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국내 현충시설이 연계하고 서로의 지혜를 공유할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지고 의미가 깊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논문

- 김성균, 「에코뮤지엄의 활동에 관한 연구: 경기만에코뮤지엄을 중심으로」, 『NGO연구』 14(3), 한국NGO학회, 2019.
- 변지혜, 「ICOM의 박물관 정의 개정 논의 연구 -박물관경영의 예측과 제안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0(54), 한국예술경영학회, 2019.
- 배영동, 「주민 주도형 마을문화자료관 만들기의 가능성과 의의」, 『실천민속학 연구』 17호, 실천민속학회, 2011.
- 배은석, 「박물관 고을 영월의 지역자원경영을 위한 영월 에코뮤지엄 가능성에 관한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제13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3.
- \_\_\_\_\_,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활용한 지역의 유산보존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익선동 도시형한옥밀집지구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15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4.
- \_\_\_\_\_, 「에코뮤지엄을 표방한 마을박물관의 실험적 시도 - 서울《익선동 마을 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28호, 한국박물관학회, 2015.
- 오일환, 「中國의 生態博物館(에코뮤지엄)形成과 實態에 관한 연구」, 『고문화』 (6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6.
- 이재영, 「프랑스 에코뮤지엄 사례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제8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2.
- 조성실, 이정우,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에서 마을박물관 설립운영과 과제 : 전주노송니우스 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문화』, 통권제8권 제3호, 한국지역문화학회, 2021.
- Burcin Cem Arabacioglu, Gamze Ergin, 'The 'new' museum comprehension: "Inclusive museum"', Conferenc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Trends in Architecture and Interior DesignAt: Zagreb Croatia, 2016.
- Óscar Navajas Corral, Japan ecomuseums: Global models for concrete realities, *Sociomuseology IV*, Cadernos de Sociomuseologia, 2010.

### 단행본 및 보고서

- 배은석, 『에코뮤지엄: 지속가능한 농촌 희망 프로젝트』, 성남: 북코리아, 2013.
- 에일린 올바슬리, 『역사도시 투어리즘』, 독서모임 책술 옮김, 서울: 놀와, 2012.
- 오하라 가즈오키, 김현정 옮김, 『마을은 보물로 가득차 있다』, 서울: 아르케, 2008.
- Peter Davis, *Ecomuseums A Sence Of Place*, London: Continuum, 2011.